



군산시 먹거리 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 안전의 한계는 없다

군산시 먹거리정책 화두 ‘공공성’

시민의 건강·안전이 최우선 과제

농축산물 지역내 순환체계 조성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동



군산시의 먹거리정책은 한 마디로 “따뜻함”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넘어 대학생,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금년부터 친환경쌀이 공급되고 있다.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생들과 노인들에게는 친환경쌀이 공급된다.

이는 시민 한 사람에게도 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하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만들기 위한 첫 삽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푸드플랜을 바탕으로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의 방식도 이에 맞게 개편되고 있다. 농산물의 기획생산 계획이 실행되고 군산푸드 통합인증시스템이 법제화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9월이면 (재)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출범, 시민의 먹거리를 민간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한다.

바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공공의 영역에서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민선7기의 확실한 선언이다. 그 시대 선언에는 시민을 위한 농업인을 위한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이러한 정책실행의 핵심에 먹거리정책과가 있다.

이번에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명명된 먹거리정책과의 소비자 밥상을 위한 업무들이 무엇이고 또 어떤 먹거리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군산시 먹거리정책을 따라가 봤다.

먹거리정책의 화두는 공공성



먹거리정책은 2019년부터 시행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계획”과 군산시 푸드플랜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을 실행하기 위

한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9월 가동한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센터 산하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군산시먹거리위원회를 구성, 분과별로 시의적절한 전략과 사업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재)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의 출연기관이고 먹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기획되어 생산·가공되고 유통되는 것이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먹거리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재)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재단의 자립과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시 농민들의 신소득원인 꼬꼬마 양배추 생산 확대 및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위한 꼬꼬마 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시 및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분야에서 NON-GMO 기름과 장류만을 사용할 방침에 대응하여 유채 및 장류 사업에 다각적인 사업화 하고 있고 관내 로컬푸드 전용직매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의 먹거리는
미래한국의 건강지수

“유아 때부터 제대로 된 먹거리가 생애 건강의 초석”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먹지 못해도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먹거리를 주고 싶다는 우리시대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말이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이고 철학이라고 말한다.

군산시에서는 초·중·고교 학교급식과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간 물류공급에서 서부권 거점센터로서의 물류공급,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린이집과 유치원 친환경쌀공급 등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만이 아닌 공공급식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지역 식재료 공급망 확대



를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중·고교생 과일간식 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도전하고 있다.

아울러 군산대학교와 군산시 513개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일반쌀을 군산시 농업인이 생산한 친환경쌀로 전환 공급하는 등 군산시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농업인들을 위해 ‘학생꾸러미 가정직매장사업’을 선도적으로 제안, 전국적으로 좋은 제도로 정착한 바 있다.

농산물 지역순환의 거점, 로컬푸드직매장



군산푸드통합인증을 통한 지역먹거리의 안전성을 담보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 연계성을 높인 로컬푸드 직매장 3~4개소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자체 인증제의 새로운 접근으로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공급할 먹거리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과 분석장비를 완비하여 신뢰받는 지역농산물 유통·협업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로컬푸드직매장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먹거리 소비의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공유주방, 공유부엌, 농가레스토랑, 착한카페, 착한마트, 대학생아침밥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여 시민과 함께 농산물의 지역순환의 고리를 짜임새 있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

기획생산은 맞춤소비이다



푸드플랜은 농산물의 적정생산에 기반한다. 하여 품목별, 농가별 관리는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지역순환체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친환경농산물, 지자체 인증농산물, 축산물의 체계적인 기획생산은 푸드플랜의 가능자이다.

군산시 푸드플랜의 생산 전략은 수도작 중심의 군산농업을 농축산물의 수요를 예측, 분석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도록 농업인의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으로사람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데 있다.

먹거리의 지역화 목표는 70%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획생산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현장에 적용된다. 안정적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등 신규농업 도입 등 농가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군산시 과일 및 채소류의 타시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생산기반 확대 및 농업인 육성책을 마련, 우리 지역 내 생산기반 조성이 시급한 농산물에 우선순위에 맞게 내년부터 시설채소 생산기반 확충, 전라과수 생산단지 조성, 노지 채소 기계화단지 조성 등 30ha 규모로 생산기반을 늘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다 품목 생산농업인 1,000명 육성하여 기획생산을 통한 전략작목 육성도 힘을 모으고자 한다.

가공의 일상화 그리고 도시브랜드 “수제맥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부가소득 창출은 농업인에게 기회이다. 농업인을 위한 농산물이 가공지원센터는 내년이면 2배로 그 규모가 커진다. 농업인이 가공한 제품들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공급 문이 열리면서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맞춤형 제품이 개발되고 향후 로컬푸드직매장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식품제조기업과 전통식품 육성기업의 움직임이 부각된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날로 바빠지고 있다. 현재 쌀조청, 젤리, 제과제빵 등 58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농산물가공시설이 확충되는 내

년부터는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서울시 공공급식 등에 100여 개의 다양한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제품을 공급할 준비가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 국산맥아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는 지역 보리의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그 동안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수제맥주 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국내 유일하게 맥주의 원료인 보리에서 맥아 제조, 지역특산 수제맥주 양조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었다. 여기에 가장 위생적인 옛기름가공은 유쾌한 덩어리다.

앞으로 맥주용 맥아 2종, 식혜용 옛기름 1종을 상품화 예정으로 맥주용 맥아 및 옛기름을 2,000톤 소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논이 피는 것은 구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한 수제맥주특화사업장에 자체 양성한 수제맥주역군들의 창업이 초입기에 들어가 수제맥주의 ‘도시 브랜드 전략’은 이미 시동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농산물 마케팅의 핵심은 쌀, 보리명성 유지



군산시에서 쌀, 보리는 농업인의, 농업의 자존감이다. 군산의 쌀, 보리는 전체농업소득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신동진쌀과 흰쌀쌀보리에 대한 자긍심은 여전하다.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산이다.

군산시는 이 분야의 식량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지난해 식량산업 5개년(2019~2023)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쌀 경쟁력제고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쟁력 중심의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3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장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논타작물 및 밭식량작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다각화로 식량작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군산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 및 전북쌀 Rice-up프로젝트 사업 등 2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RPC/DSC의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단계적 농업RPC/DSC 통합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유통의 외연을 확장하여 전국적인 명성에 맞는 브랜드인 지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지역 먹거리정책은 지역 생존의 조건이다. 그런 맥락에서 군산시가 기획생산, 지역유통, 식생활 시민교육과 소비자 연대를 통해 2조 7천억이 넘는 군산시 먹거리시장에서 지역농축물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만드는 일은 지역푸드플랜의 궁극 지향점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는 일이다. 그런 군산시의 먹거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먹거리도, 일자리도 다양해지는 그날을 향한 소망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길 기대해 본다.

/박수현 기자